

위로의 KIA 야구 하반기 희망 장전

코로나·고물가에 지친
지역민들에 한줄기 위안
외국인 선수 완전체 구축
22일 하반기 대만적 스타트

광주·전남지역 팬에게 희망을 안겨준 '호랑이 군단'이 하반기 대만적 스타트를 걸고 있다. 지역 팬들은 전반기 KIA 타이거즈의 변신을 지켜보며 위안을 얻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신(新)3고'의 시름을 잊게하는 정량제였다. 매 경기 8~9000명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기다가도 맥없이 역전을 허용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해는 강한 집중력과 폭발력으로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 기대감을 안겨준 플레이로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5월은 한국시리즈 왕좌에 올랐던 2017년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강렬했다. KBO 5월 MVP로 선정된 소크라테스와 함께 나성범·황대인으로 구성된 '나황소'가 타선을 이끌면서 18승 8패를 수확,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타격 상승세가 꺾인 6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코뼈 골절 악재를 만난 7월에 부침을 겪으면서 전반기를 5위로 마감했다. 아쉬움에도 희망의 불씨를 살린 '호랑이 군단'이 하반기 질주를 기약하고 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로니를 웨이버 공시하고, 새 외국인 투수 파노니를 영입한 KIA는 놀린과 소크라테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두 선수가 그라운드로 돌아오게 되면 KIA는 '외국인 선수 완전체'를 구축해 순위 싸움의 원동력을 얻게 된다. 더 강력한 마운드를 위해 놀린의 교체도 염두에 두고 해외 시장을 주시

하고 있어 전력 보강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스타브레이크는 KIA의 하반기 전력 질주를 위한 좋은 휴식이 됐다. 숨 가쁘게 전반기를 달려온 KIA 선수단은 지난 18일까지 달콤한 휴가를 보냈다. '최다 득표' 타이틀을 차지한 양현종 등 올스타전에 참가한 7명의 선수는 19일까지 숨을 고르고 하반기를 기약하고 있다. KIA는 22일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2경기 차로 4위에 랭크돼 있는 KT 위즈를 추격하는 것이 KIA의 우선 목표. 3위 LG 트윈스는 9.5경기 차로 조금 멀리 있지만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상대다. KIA의 순위 싸움 만큼이나 '새 얼굴'의 활약도 하반기 관심사다. 2020년 정해영이 특급 신인으로 눈길을 끌었고, 지난해에는 이의리가 신인답지 않은 배짱투로 이순철 이후 명맥이 끊겼던 타이거즈 신인왕 계보를 이었다. 올 시즌에는 김도영이 있다. 시범경기 타격 1위에 오르며 '슈퍼 루키'의 등장을 알렸던 김도영은 시즌 초반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7월 반전에 성공했다. 김도영은 7월 9경기에 나와 30타수 9안타로 3할 타율을 찍었다. 잠실 좌측 상단을 때린 스리런 등 3개의 홈런포도 날리면서 본격적인 시즌 시작을 알렸다. 한층 날카로워진 창으로 끝까지 가는 승부를 펼치면서 또 코로나19를 딛고 관중석이 다시 활짝 열리면서 팬들도 KIA의 2022시즌 질주에 함께하고 있다. 전반기 40경기에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관중은 총 35만3787명, 평균 8845명이 경기장을 찾아 '10만 타자'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력 재정비의 시간을 보낸 KIA가 하반기 다시 한번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지역민들에게 가을 야구를 선사할 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룬다. 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이자 당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재선의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연합뉴스

함께 성장하며 푸른 꿈이 자라는 학교



야~방학이다! 일선 초등학교들이 여름방학을 맞은 20일, 나주 남평초등학교 3학년1반 어린이들이 방학식을 마치고 선생님의 배움을 받으며 하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새 국면...정상화 주목

국회서 관계기관 참여 당정협의
광주시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한시 가동후 재생에너지연료 전환
국무조정실 중재안 집중 논의
소송 손실금 처리 문제는 이견

광주·전남의 해묵은 현안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문제가 대법원 판결 이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첫 당정협의 간담회를 여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에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고, 나주시 등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난 5년 동안 멈춰섰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 중재안 가운데 나주시와 난방공사, 청정빛고을간 손해배상 소송 등 진행 중인 소송 7건을 모두 취하는 과정에 손실금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회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6차 당정협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 그리고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행정소송 결과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등 SRF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된 가운데 개최된 이후 SRF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나주시는 지방선거 기간 체결된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상생발전협약’과 향후 지자체간 협력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 발전소 관련 소송 등 주요 결과를 브리핑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자체조정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간의 협의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 기관별로 제한적으로 논의되었던 ‘국무조정실 중재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정안에는 광주시가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주 SRF 발전소는 특정

기간(10년)을 정해 시한부로 가동하며,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정훈 의원은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송전이 결과적으로 나주시민의 선택지를 축소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고, 법적분쟁이 일단락된 만큼, 현상황에서 나주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는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판단된다”며 “SRF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 만큼 가동시한을 확실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못 박고 이를 바탕으로 각 관계기관이 연료전환과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